

# 국산 한약재 품귀 폭등세 폭리노린 '사재기' 부작용

국산한약재 가격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다. 1년근 황기의 경우 근당(6백g 기준) 6천원(98년 12월말)선 이던 것이 1만원 선으로 폭등했고 산수유나 시호는 물량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다.

천궁, 산수유, 시호, 황금, 택사등 주요 국산약재들이 평균 50%포인트 가격상승했으며 많게는 일천궁의 경우 무려 2배 가까이 시세가 폭등했다.

때문에 국산약재값 폭등을 이유로 최근 관련 소비자단체들에서는 황기, 천궁, 시호 목단, 황금, 택사, 산수유등 7개품목의 수입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산약재 시세가 이처럼 계속적 폭등현상을 보이고 있는 원인은 우선 재배면적 감소로 물동량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약용작물 생산량이 예년에 비해 급격히 감소했다고는 하나 지금까지의 꾸준한 재고량을 감안한다면 지금처럼 폭등세를 보일만큼 물량 부족이 심각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오히려 폭등세를 노린 일부 장사꾼들의 '사재기'가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산한약재 재배면적 감소로 물동량이 그리 많지 않을것을 미리 점친 일부 '큰손'들에 의해 천궁, 독활, 황금, 향부자, 택사등 약재들이 매점매석됨으로서 가

격폭등을 부추기고 있는것.

또 시기적으로 수확한 약재가 생산농민들의 손에서 이미 떠나있는 상황에서는 국산시세가 폭등했다고 하나 농가소득과는 거리가 먼 얘기다. 오히려 값이 올랐다고 수입이라도 들어오는 날에는 수확시기에 가서 약재값이 다시 바닥으로 추락하고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생산농민에게 돌아가고 마는 것이다.

일부상인들의 '매점매석' 행태는 한약시장내에서 오래전부터 이뤄져온 관행이며 상인들끼리의 가격조작도 꽤나 조직적으로 이뤄진다.

오랫동안 한약업에 종사해온 한 상인은 "OO약령시 공매인 70~80%가 거의 △△상인들로 이뤄져 있는데 그 안에서 수없는 인위적 가격조작, 즉 실제 시장 질서에 의한 가격형성이 아닌 거품가격이 형성된다"고 설명한다. 예를들어 △△지역 상인들 A, B, C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천궁 10만근을 갖고있는 A가 값을 올리려고 한다면 우선 5백근 정도를 대구약령시 공매에 시장시세보다 높은 시세로 내놓게 되고 각본대로 B가

시세변동 추이 (600g 기준)

품 목	98년 12월말 시세	99년 4월말 시세	상승률(% P)
당귀(통)	4,000	5,200	30
구기자	12,500	17,000	36
금은화	9,500	1,300	36.8
독활	3,000	4,800	60
산수유	15,000	26,000	73
시호	18,000	22,000	22.2
의이인	2,400	3,200	33.3
토천궁(절)	6,500	8,000	23
일천궁(절)	4,700	9,000	91.4
백사(절)	3,300	5,500	66.5
황금	7,500	9,500	26.6
황기(소)	6,000	10,000	66.6

A를 대신해 높은 시세에 물건을 입찰해 간다. 그리고 나면 바로 다음날 열리는 △△장에서의 천궁시세는 대구시장 입찰가로 형성된다는 것.

결과적으로 A는 갖고있는 10만근 천궁중에서 5백근을 시세보다 높게 사고 파는 얼마간의 손해를 봤지만 나머지 9만9천5백근에 대해서는 시세차액으로 인해 엄청난 폭리를 취하게 되는 셈이다.

최근 국산약재 일부품목의 품귀현상과 폭등세도 이같은 불합리한 유통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이같은 관점에서 볼때 이번 관련소비단체들의 수입요청건에 대해서도 국산시세가 폭등하니 수입해 들여와 급한 불부터 끄자는 식의 단순접근식 해결보다는 제도적으로 보다 근본적인 유통구조 개선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것이란 지적이 높다.



## 내추대성 '만추당귀' 육성

생협, 내년부터 채종 농가보급계획

꽃대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당귀 새품종 <만추당귀>가 개발돼 내년부터 농가에 본격 보급될 전망이다.

농가에서 당귀 재배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꽃대는 당귀 수량및 품질저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만추당귀>는 농진청 작물시험장 특용작물과에서 5년여의 연구끝에 개발한 품종. 꽃대가 올라오는 비율이 1%이하로 재래종의 40~50% 보다 현저히 낮고 수량과 품질도 월등히 높다.

이에 생산자단체인 한국

생약협회는 울초 농진청으로부터 <만추당귀> 종자 1kg을 가져다 약6만주 육묘를 생산해냈다.

현재 강원도 평창군 소재 약4천여평 밭에 묘를 식재, 채종포를 운영중인데 내년에는 여기서 생산된 종자 전량을 농가에 저렴하게 보급할 계획이다.

작물시험장 특용작물과 유홍섭 연구원은 "〈만추당귀〉는 중국산에 비해 품질과 수량면에서 크게 앞선다"며 "해발 600m이상 고랭지의 그늘지고 배수가 잘되는 곳에서 재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약초 청량음료 개발

한약재를 원료로 한 청량음료가 개발됐다. 대원공과대 측은 지난달 22일 제천산약초를 원료로 청량음료를 개발 상품발표회를 가졌다.

대원공과대 산학협력처(처장 조일환 교수)가 향토산업기반 거점대학으로서 제천지역 약초산업의 부가

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연구에 들어간 이후 처음으로 결실을 거둔셈이다.

시행착오끝에 탄생된 약초 청량음료는 홍화 황기 당귀 천궁 동굴레등 5가지. 방부제를 일체 넣지않고 저장성과 상큼한 뒷맛을 주기 위해 구연산이 함유된 것이 특징이다.

## 눈꽃동충하초 약리작용 재평가돼야

항암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동충하초 수요가 꾸준히 늘고있는 가운데 국내 생산농가에서 확대재배되기 시작한 눈꽃동충하초(Paecilomyces japonica)의 효능과 약리작용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 이란 지적이다.

일명 누에동충하초라고도 불리는 눈꽃동충하초는 농진청 잠사곤충연구소팀에 의해 개발 농가에 대량 보급되기 시작했다.

국내 재배 동충하초로서는 유일하게 보건복지부로부터 식품허가까지 받은 상태이며 제약회사등 대기업들에서 동충하초를 원료로한 제품개발에 나서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실제로 눈꽃 동충

하초에는 항암작용을 하는 코디세핀이라는 물질이 함유돼 있지 않을뿐 아니라 아직까지 전세계적으로 눈꽃동충하초에 대한 성분검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약리작용에 있어서도 그 효능이 의문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신구대학 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학술발표회에서 '동충하초 재배법과 산업전망'에 대해 특강을 맡은 이재일(장백동충하초농장)씨는 "지금까지 전세계적으로 발견된 수백종의 동충하초중 그 효능이 확

인된 것은 코디셉스속(Cordyceps)에 한하여 서너종류에 불과한데 생명공학연구소와 산림청 분석결과에 따르면 항암성분인 코디세핀 물질이 함유돼 있는것은 밀리타리스 동충하초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반해 "누에동충하초는 인공재배시 포자에 의해 기관지 천식등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수 있고 무분별하게 인공재배할 경우에는 생태계를 무차별적으로 파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불완전균류인 눈꽃동충하

초 분생포자는 바람에 의해 쉽게 날리며 거의 모든 곤충의 유충부터 성충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포자에 의해 감염을 시키는 관계로 그만큼 독성이 강하다는 것.

"농가에서 처음 재배시에는 성공했다가도 이듬해 다시 재배시에는 대부분 실패한다거나 재배시 마스크를 쓰고 재배하도록 한 점 등이 모두 포자가 독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밀리타리스 동충하초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영국, 일본, 중국등

세계적으로 그 성분과 약리작용면에서 항암, 항세균, 항진균, 당뇨병치료, 마약중독해결, 폐결핵, 자양강장제, 면역요법제 등의 효능이 있다는 학술논문이 학계로부터 인정되었기에 산업적으로 활용가치가 엄청나다고 강조했다.

이재일씨는 또 "그럼에도 정작 효과가 입증된 밀리타리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복지부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많고 효능검증도 안된 눈꽃동충하초는 복지부에서 허가까지 내주고 농가에 대량보급한 부분은 납득이 안간다"며 정부의 비전문성과 무책임함을 꼬집었다.

<문>